

무재해로 기업경쟁력을 높이재

환영철강공업주식회사



따뜻한 바람이 내 불에 닿아 향기로운 꽃향기를 뿌리고 흩어진다. 오랜만에 시원스레 뻗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며 차창을 활짝 열어 봄 내음에 한껏 젖어 본다. 마치 여행이라도 떠나는 어린아이처럼 설렌 마음으로 충남 당진에 위치한 환영철강공업주식회사를 찾았다.

■ 기업의 경쟁력, 안전에서

‘환영철강공업주식회사’는 1977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30년이란 세월을 철강업에만 전념해온 국내 굴지의 철강회사이다. 이곳 당진공장은 1993년 5월, 연산 80만톤 규모의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제강과 압연공장을 완공 가동 중에 있으며 2002년 10월에는 성공적인 M&A를 통하여 한국철강 그룹으로 편입되어 새로운 도

약의 나라를 펴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로 및 압연설비 등 대규모 설비의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저원가로 내실화를 다지고, 안전 활동과 더불어 무재해 운동을 펼침으로써 한층 높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위험예지훈련을 통한 안전관리

환영철강에서는 고철을 1,200도가 넘는 고열로 녹여 최종적으로 철근을 생산하고 있다. 철강업종이 대부분 그렇듯이 현장에는 거대한 기계들이 움직이고 있고, 용해, 정련작업장의 고온은 작업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작업자 한 사람이라도 안전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한 순간의 방심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안전활동 중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확보였고, 이를 위해 일찍부터 위험예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2002년부터 활성화되어진 위험예지활동은 4Round기법에 따라 잠재위험을 파악하는 현상파악,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본질탐구,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인 대책수립, 중점항목과 2~3개의 대체항목을 설정하는 목표설정 순으로 진행된다. 3조 3교대로 움직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각 공정에 따라 6~7명의 반으로 구성되어 작업시작전 안전구호를 외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서로 확인한다.

또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팀·반별로 위험예지훈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포상하고 있다. 2006년 2월에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을 선발하여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였다.

■ 안전의 기본,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과 사용

환영철강의 제품 생산 공정은 원료장입 → 용해공정 → 출강 공정 → 정련공정 → 압연공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주원료는 고철과 선철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철강회사와 마찬가지로 분진

과 소음이 작업환경에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집진설비와 환기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재해위험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2차 예방수단으로 개인 보호장구의 철저한 착용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노동조합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차사고 사례 발표


환영철강의 노동조합은 매년 10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차사고 사례발표와 안전구호 공모전을 통하여 자율안전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환영철강의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가는지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매년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선정, 포상하는 등 사내 안전뿐만 아니라 사외 안전에도 힘 쏟고 있다.

■ 안전은 농부의 마음가짐

환영철강의 CEO 김영진사장은 안전이란 농부의 마음가짐과 같으며 PDCA기법을 들어 이야기한다. 튼튼한 뿌리를 갖는 씨앗을 뿌리듯 통합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Plan), 따사로운 봄 햇살에 밭을 열심히 일구듯 철저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나간다(Do). 뜨거운 햇살아래 잡초를 뽑듯이 위험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고(Check), 드넓은 황금들판에서 이삭을 거두듯이 무재해를 이루는 일(Act)이다. 안전은 농부의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값진 열매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CEO의 철학아래 환영철강은 2006. 2. 2로 무재해 1배수인 750,177시간을 달성하여 지난날 뿌리며 가꾸었던 땅의 노력으로 첫 수확을 거두었다. 앞으로 더 값진 열매를 얻기 위해 오늘도 환영철강의 모든 근로자들은 뜨거운 용광로와 싸우며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미래와 무재해를 향한 의지를 다진다.  <임재근 기자>